



## 2025 ANNUAL REPORT 활동 보고서



# 전쟁없는세상



## 가람 운영위원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일 년에 한 바퀴를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고...’, 지금은 당신에게로 옮겨진 이 편지는 진심을 담아 당신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영국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평화학을 깊이 공부할 기회가 마침내 찾아왔거든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할지에 대해서요.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이란, 미국 미니애폴리스, 그리고 소식조차 듣기 어려운 곳들에서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그리고 어쩌면 명맥 정도일지라도, 그래도 많은 활동가들이 일궈냈고 또 기대어 활동하는 UN으로 대표되는 국제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다시 감옥행을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 말입니다.

동료들을 뒤로하고 잠시지만 떠난다는 미안함, 그리고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갈망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던 제게, 동료들의 믿음과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기대어, 내가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목표는 없습니다. 다만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전쟁없는세상을 지지하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세상을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가려 합니다. 이 세계에서 평화학을 ‘연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를 찾아가며 스스로를 설득하는 일이 지금의 가장 큰 당면 과제인 것 같기는 하지만요.

2025년, 전쟁없는세상은 늘 그렇듯 빠듯했지만 풍성했습니다. 활동 23년 만에 처음으로 후원 캠페인 “평화의 항해”를 열었고, 후원의 밤으로 한 해의 대미를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후원 캠페인으로 적자를 해소하고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다지는 일은 큰 도전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기꺼이 함께해 주셨고, 그 덕분에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전쟁과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와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위한 전쟁없는세상의 평화의 항해는 계속됩니다.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희망이라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소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서로 내민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아 주세요. 덕분에 진심으로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 목차

### 02 인사말

04 전쟁없는세상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6 전쟁없는세상의 조직과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08 2025년 주요 활동: 무기박람회 MADEX 저항행동

10 2025년 주요 활동: 무기박람회 ADEX 저항행동

13 2025년 주요 활동: 재판 투쟁

15 2025년 주요 활동: 무기박람회 보고서 발간

17 2025년 주요 활동: 경찰무기 감시 캠페인

20 2025년 주요 활동: 기후 핸드북 발간

22 2025년 주요 활동: 대체복무제 개선

24 2025년 주요 활동: 불법 비상계엄 저항

27 2025년 주요 활동: 『전쟁 없는 세상』 발간

29 2025년 주요 활동: 후원 캠페인 “평화의 향해”

32 2025년 전쟁없는세상은 그밖에 무엇을 했나요

38 2025년 타임라인

40 전쟁없는세상 2025 재정보고

42 전쟁없는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후원인들

43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해주세요

# 전쟁없는세상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전쟁없는세상은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평화주의·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로,

2003년 창립 후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무기 감시 프로그램’, ‘기후위기 군사책임 프로그램’, ‘전쟁거부자 조직 프로그램’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무기박람회지향행동’과 ‘대체복무 개선모임’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1

### 경찰무기 감시 프로그램

한국산 경찰무기가 특히 분쟁 지역과 권위주의 국가로 수출되는 것을 감시하고 축소, 중단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한국산 경찰무기 수출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하며, 엄격한 수출 통제 제도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 2

### 기후위기 군사책임 프로그램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로서 군사부문이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이를 위해 군사 배출량 공개를 요구하고, 국제 협약에 군사 부문을 포함시키며, 시민들에게 군사 활동의 기후 비용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 3

### 전쟁거부자 조직 프로그램

병역거부를 비롯해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는 개인들의 시민불복종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반전운동으로 조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병역거부 난민 지원, 병역거부자 상담 및 대체복무제 개선 활동을 합니다.

“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며,

전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전쟁없는세상의 조직과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각 활동기구는 전쟁없는세상이 꿈꾸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조직입니다.

## 총회

전쟁없는세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매년 초 개최되는 총회입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 예결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등 단체의 기본적인 구조와 활동 방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운영 위원회

총회는 단체의 운영을 위해 상설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합니다.

**2025년 운영위원:** 가람, 오리, 용석, 쭈아, 뭉치, 쥬, 우공, 악희

## 사무국

각각의 프로그램/캠페인 활동을 코디하는 동시에 전쟁없는세상의 홈페이지, SNS 관리, 재정 및 회원 관리 등 단체의 관리운영 업무 전반을 담당합니다.

**2025년 사무국 활동가:** 오리, 용석, 쥬

## 활동 기구

전쟁없는세상은 캠페인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메인 프로그램 외에도 ‘마음의 소리 위원회’, ‘모금홍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쟁없는세상의 주요 활동기구

### 경찰무기 감시 프로그램

한국산 경찰무기가 특히 분쟁 지역과 권위주의 국가로 수출되는 것을 감시하고 축소, 중단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2025년에는 쥬, 아침, 재욱, 쭈야, 해미가 함께했습니다.

### 기후위기 군사책임 프로그램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로서 군사부문이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2025년에는 그링, 지원, 오리, 팽권이 함께했습니다.

### 전쟁거부자 조직 프로그램

전쟁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시민들을 조직하고 전쟁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 캠페인을 합니다. 2025년 거부자들에는 용석, 뭉치, 안악희, 가람, 이담, 두부가 활동했습니다.

### 마음의 소리 위원회

사무국원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슈들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가람과 쭈야가 구성원입니다.

### 모금홍보 위원회

전쟁없는세상 특성을 잘 살려 모금을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용석, 쥬, 우공이 모금홍보 위원회 구성원입니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무기산업과 무기박람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전쟁없는세상,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 한베평화재단 등 25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모임으로 대체역법 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연대활동

### 무기박람회저항행동

### 대체복무 개선모임

## 2025년 주요 활동 무기박람회 MADEX 저항행동



한국에는 항공우주 및 종합무기박람회 ADEX, 지상무기박람회 KADEX, 해양무기박람회 MADEX, 경찰무기 및 치안산업 박람회 KPEX 등 다양한 무기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들은 세계 주요 무기회사와 각국의 군·치안 관계자들이 모여 무기를 전시하고 거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고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을 학살해 온 국가들과, 그러한 폭력에 사용된 무기들이 기술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무기박람회가 성공할수록 더 많은 무기가 팔리고, 더 많은 전쟁과 군사적 갈등이 초래됩니다.

전쟁없는세상이 함께하고 있는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2025년, 양대 무기박람회인 MADEX와 ADEX에 대응해 저항행동을 펼쳤습니다. 그중 해양무기박람회 MADEX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이 부산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 수도권 중심의 연대체를 넘어, 부산, 제주, 일본 등에 거점을 둔 대안문화연대,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우주군사화화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젠코(Zenko) 등 단체들이 함께하며 저항의 기반을 확장했습니다.

### 강연: 부마항쟁에서 MADEX까지

MADEX를 앞두고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특별강연 ‘부마항쟁에서 MADEX까지’를 기획했습니다.

다. 부마항쟁의 기억이 깊은 부산에서, 국가폭력과 무기산업이 어떻게 뿌리내려 왔는지, 그리고 이에 맞선 저항의 역사가 어떻게 현재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강연에서는 무기박람회저항행동 12년의 역사와 함께, 부마민주항쟁에서의 국가폭력과 군사주의, 부산-경남 지역 무기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며 과거의 국가폭력과 오늘의 무기산업을 연결했습니다.

## 기자회견: MADEX는 점령과 학살의 공범

5월 30일 센텀시티역 1번 출구 앞 기자회견에서는 MADEX가 점령과 학살의 공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올해 MADEX에 이스라엘 국영 무기기업 IAI가 참가하고, 이스라엘 해군 지휘부가 'VIP'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를 환영하는 것은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점령에 대한 공모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집회: 전쟁장사 중단하라

5월 31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피켓과 구호를 통해, 박람회장 바깥의 시민들에게 무기박람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집회는 무기거래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통념에 균열을 내고, 전쟁과 무기산업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사회적 체념을 가시화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외치며 불편함을 드러낸 장면은, 바로 그 체념이 어떻게 폭력의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 무기박람회 다크투어

한편 MADEX에서는 2024년 KADEX에 이어 두 번째 무기박람회 다크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다크투어는 박람회장 내부에서, 이어폰을 통해 개별 참가자에게 설명을 제공하며 전시 관람 경험 자체를 전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시가 무기를 첨단 기술과 미래 시장의 언어로 포장하는 동안, 다크투어는 각 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분쟁과 민간인 피해 사례를 짚으며 전시의 의미를 재구성합니다. 2024년 KADEX에서 있었던 ‘반전시위단체 출입금지’와 같은 방해 없이, 이번 MADEX 다크투어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2025년 주요 활동

# 무기박람회 ADEX 저항행동

국내 최대 규모의 무기박람회인 서울 ADEX 2025는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성남 서울공항과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2025년 ADEX에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가담해 온 이스라엘 국방부 대외협력국과 엘빗 시스템,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라파엘 등 이스라엘 무기 기업 8곳이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기박람회 문제를 기존의 무기거래 비판을 넘어,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연대와 책임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팔레스타인문화연대 등 새로운 연대 단위들이 무기박람회저항행동에 함께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 탄원 및 기자회견: 전범기업의 ADEX 참가를 금지하라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ADEX 개막 전부터 '이스라엘 전범기업의 서울 ADEX 2025 참여 금지 촉구' 탄원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9월 8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시민 3천여 명이 서명으로 함께했고, 이 결과를 모아 9월 23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전범기업의 서울 ADEX 2025 참가를 금지하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과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며, 이스라엘 무기기업들이 생산한 드





론과 폭탄이 민간인, 구호대원, 난민촌을 표적 살해하고 파괴하는 데 사용되어 왔고, 이를 “실전 검증”이라 홍보하며 판매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기업의 전시 참여를 제한하기 시작한 흐름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묵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퍼블릭데이 집회: 평화난장

ADEX 퍼블릭데이 기간인 10월 19일에는 성남 서울공항 후문 일대에서 집회와 시민 참여형 ‘평화난장’을 진행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되는 무기, 여기서 거래된다”는 문구를 걸고, 관람객에게 말을 걸며 박람회 감추는 폭력의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음식(후무스)을 나누고 시를 낭독하며,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보드게임을 하는 ‘평화 놀이터’를 운영했습니다. 전투기 굉음과 애국주의적 분위기가 뒤섞인 공간 한가운데에서, 무기 구경의 시간표에 끼어드는 평화의 자리를 일부러 만들고 지키는 행동이었습니다. 무기 체험과 사진 촬영이 엔터테인먼트로 소비되는 전시장 바깥에서, 우리는 관람객들에게 “이 무기는 어디에서 누구를 다치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 비즈니스데이 직접행동: ‘빨간 손’ 행동

ADEX 비즈니스데이 기간인 10월 21일에는 일산 킨텍스 전시장 내부에서 ‘빨간 손’ 행동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국영 무기회사 IAI 부스 앞에 모여 붉게 칠한 손을 들어 올리고 “집단학살 중단하라!”, “전쟁장사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살에 가담한 기업이 정상적 거래의 주체로 서 있는 현실에 균열을 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파랑과 하얀 로고로 치장된 부스 앞을 다수의 붉은 손과 목소리가 채우는 장면은 기술 전시로 위장된 폭력의 정체를 드러내는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곧 경비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박람회 측은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퇴거 과정에서도 침묵과 구호를 오가며 저항을 이어갔고, 집단학살에 공모하는 산업 앞에서 침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25 ADEX 저항행동은 이스라엘 전범기업의 참가를 실제로 막아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한국의 무기박람회가 무엇을 정상으로 만들고 무엇을 지우는지를 시민 앞에 드러내고, 그 질서를 흔드는 행동이었습니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과 전쟁없는세상은 앞으로도 무기박람회가 전쟁과 인권침해의 출발점이자 죽음의 시장임을 폭로하며, 그 한복판에서 평화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저항을 이어갈 것입니다.



## 2025년 주요 활동 재판 투쟁

2025년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거리와 전시장 안팎의 저항을 법정에서 다시 증명하는 재판 투쟁이었습니다. 무기박람회에 대한 비폭력 직접행동이 범죄로 취급되는 현실에 맞서,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 2022 DX KOREA 저항행동: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2년 9월 22일, 평화활동가 8명은 DX KOREA 2022 전시장 안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고, “전쟁장사 중단하라”라는 현수막과 구호로 평화적 예술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폭력도 파괴도

없었지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은 3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1심은 “위력 행사로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대법원은 항소심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는 단지 한 사건의 결과를 넘어, 공개된 공적 행사에서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비폭력 퍼포먼스가 어디까지 처벌 대상 소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평화적 항의를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다시 세운 판결이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같은 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





영하며, 당시 직접행동에서 연주했던 곡을 다시 연주하는 공연으로 “전쟁 유죄, 평화 무죄”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 2023 ADEX 저항행동:

### 1심 유죄 판결

한편 2023년 ADEX 저항행동에 대해서는 7월 3일 1심에서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며, 무기박람회 비판 행동을 형사처벌로 압박하는 흐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기박람회라는 전쟁 비즈니스의 장에서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범죄로 다뤄지는 현실을 드러낸 판결이었고, 이는 이후 항소심 대응과 함께 한국 사회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중요한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 무기 수출입 통계 정보공개

#### 행정소송: 승소 확정

재판 투쟁은 형사사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관세청이 비공개 처리한 2023년 국가별 무기류(HS 93) 수출입 통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

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의 공개가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관세청 주장을 “막연한 추측 내지 가능성에 불과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지나친 논리 비약”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국방·방위사업 영역이야말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대상”이며 정보 공개가 “투명성을 확보할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관세청 무역통계와 한국무역협회 K-stat 등에서 해당 정보가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이 승소는 무기거래의 민주적 통제는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성과였고, 이후 판결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해 감시의 언어를 넓혀갔습니다.

2025년의 재판 투쟁은, 무기박람회와 무기수출을 둘러싼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일이 거리의 외침에 더해 제도적 권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 2025년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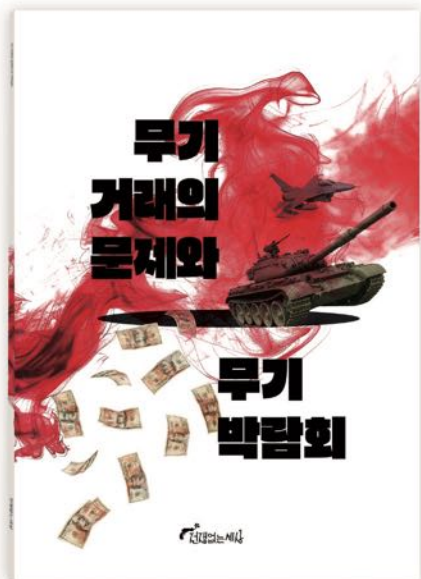
### 보고서 「무기거래의 문제와 무기박람회」 발간

2025년 전쟁없는세상의 또 다른 주요 성과는 2년간의 조사와 연구를 집대성한 연구 보고서 「무기거래의 문제와 무기박람회」 발간이었습니다. 전쟁과 군사주의가 일상을 잠식하는 시대에, 무기거래를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바라보고, 한국 사회가 그 인프라의 중요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2024년부터 자료를 취합해 왔고, 2025년 보고서는 그 결과물입니다.

#### 보고서

##### 「무기거래의 문제와 무기박람회」

보고서는 먼저 국제 무기거래 규제체계와 관련 논의의 흐름을 정리하며, 무기 생산·거래 이전에 대한 국제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실제 인권침해와 무력분쟁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짚습니다. 이어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문제를 인권침해, 무력분쟁, 부패, 환경·기후위기, 수출 통제의 한계, 정부 지원 정책, 그리고 무기 박람회라는 구체적 장소를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무기박람회와 합법적 거래의 외피 아래에서 전쟁 범죄 및 권위주의 국가와의 거래를 정당화하고 연결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무기박람회(ADEX, KADDEX, MADEX, KPEX)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상황과 맞물린 한국 무기박람회의 문제와 치안산업과 감시·통제 기술이 인권침해 현장으로 확산되는 실태를 사례 연구로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 방위산업의 지역화, 방산기업의 제3국 생산과 역외 수출, 그리고 무기수출입 통계 비공개 관행과 이를 다룬 행정소송 사례까지 담아, 무기거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보고서의 중요한 한 축은 자율무기체계(LAWS)에 대한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자율무기체계의 개념과 기술적 발전 현황을 정리하고, 인간의 통제 없이 표적을 탐지·선별·살상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확산될 경우 발생할 법적 책임 공백, 인권 침해의 구조적 심화, 전쟁 문턱의 하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진행 중인 자율무기 규제 논의의 한계와 각국의 상이한 입장을 짚으며, 한국이 방산 경쟁력과 첨단기술 담론을 앞세

워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는 무기거래의 문제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 전쟁의 형태와 직결된 현재진행형 쟁점임을 분명히 합니다.

## 발표회: 전쟁의 시대, 무기산업을 말하다

보고서 발간과 함께 11월 21일 온라인 발표회 ‘전쟁의 시대, 무기산업을 말하다’를 열어 주요 내용을 사회적으로 확산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국제 무기거래 규제체계의 현황과 한계, 분쟁과 인권침해, 기후위기를 부르는 무기거래의 구조, 자율무기체계 확산의 문제, 무기박람회가 만드는 합법적 거래의 민낯, 무기산업의 지역화와 젠더 관점의 쟁점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 단순한 결과 공유를 넘어, 무기거래를 둘러싼 국제 규범의 공백과 한국 사회의 책임, 그리고 시민사회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앞으로도 조사와 연구, 발간을 통해 무기산업의 실체를 기록하고, 무기박람회와 무기거래를 둘러싼 감춰진 폭력을 공론장에 드러내는 기반을 넓혀갈 것입니다.

## 2025년 주요 활동

# 경찰무기 감시 캠페인

2025년 전쟁없는세상은 경찰무기 감시 캠페인을 본격화하며 시민들과 함께 경찰무기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장을 열고, 치안산업 박람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감시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최루탄이 더 이상 시위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한국산 경찰무기는 여전히 해외 권위주의 국가로 수출되어 민주화 시위와 비폭력 시민저항을 탄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경찰무기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과 수출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는 현재진행형의 인권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 공론장: 시민에게 겨냥된 무기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전쟁없는세상은 2025년 7월 21일 ‘시민에게 겨냥된 무기: 경찰무기 수출과 경찰 무력 사용에 대한 공론장’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공론장은 경찰무기 관련 정보가 정부와 기업에 의해 제한적으로 관리되어 온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경찰무기 수출에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민주 사회에서 경찰의 무력 사용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숙의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1부에서는 경찰무기 문제의 구조와 현실을 짚는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산 최루탄과 시위진압 장비가 해외에서 사용된 사례를 통해, 경찰무기가 단순한 치안 장비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경찰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 기준과 시민의 권리를 다루며, 유엔과 국제인권규범이 최루탄, 전기충격기, 구속 장비 등에 대해 어떠한 제한과 규제를 권고하고 있는지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경찰 무기 및 경찰 무력 사용의 최근 동향을 통해, 이 문제가 해외 수출에만 국한되

지 않고 한국 사회 내부의 민주적 통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부 속의 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경찰무기 수출의 허용 범위, 경찰 무력 사용 기준의 설정 주체, 시민 감시의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무기는 단순히 위험한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과 시민의 관계, 안전과 통제의 경계를 묻는 민주주의의 핵심 쟁점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습니다.

## 국제치안산업대전 현장조사

한편 전쟁없는세상은 2025년 10월, 국제치안산업대전(KPEX)에 대해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엄지수갑과 전기충격봉, 최루탄 발사기, 물대포 등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이 금지 또는 규제를 권고한 장비 일부가 전시 및 홍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치안산업 박람회가 공공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고문과 학대에 악용될 수 있는 장비를 정상화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KPEX 현장조사 결과는 이후 발간된 연구보고서 「무기거래의 문제와 무기박람회」에 반영되었습니다. 치안산업 박람회가 합법적 무기거래의 장으로 포장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을 은폐

및 정당화하는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2024~2025 국제치안산업대전 현장조사는 그 핵심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되었습니다.

공론장과 현장조사, 그리고 보고서 발간은 서로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과정이었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보고서로 정리되었고, 보고서의 내용은 다시 공론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검토되고 질문되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이를 통해 경찰무기 감시가 전문가 활동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통해 확장되어야 할 민주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 2025년 주요 활동

# 기후 핸드북 「군대와 탄소발자국: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 발간

2025년은 전쟁없는세상의 새로운 프로그램 ‘기후위기 군사책임’이 첫 활동을 시작한 해입니다. 어떤 활동이 가장 필요하고 착수하기 용이하며 효과적일까를 생각하다가 핸드북 발간을 결정했습니다. 반군사주의 운동은 잘 알지만 기후운동과 쟁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활동가들이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공부도 필요하기도 했고요. 또 군사부문과 기후위기와와의 관계에 관한 이렇다 할 한국어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에 관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핸드북도 발간하다니 너무나 효과적이기까지 했지요. 다행히 사무금융 우분투자재단에서 우리의 계획을 좋아해 주셔서 지원을 받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주로 이 문제 관련한 각 국가(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의 관례와 사례를 검토하고 공부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각 국가의 사례는 어떤

면에서는 도찔개찔이었지만 그 와중에 저희가 배울만한 것들,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알리고 한국의 상황에도 적용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뽑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방부와 환경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알아야 감시를 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는 매우 실망스런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가 없다, 보여줄 수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류의 답변이었어요.

이러한 조사들을 마치고 드디어 9월 기후정의의 향한 행진과 투쟁의 달을 맞아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분석한 「군대와 탄소발자국: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 핸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전 세계 군사부문이 연간 27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전체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며, 이는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라는 점, 한국은 476억 달러(GDP 대비 2.6%)를 군사비로 지출하는 세계 11위 군사대국

이지만 군사부문 온실 가스 배출량 보고는 극히 미흡하다는 점, 한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1A5 카테고리로 2,919천톤CO<sub>2</sub>e 만을 보고했지만(2023 NIR), 이마저도 군사용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결국 해외 민간단체 CEOBS에서 한국의 데이터 접근성을 ‘미흡(Poor)’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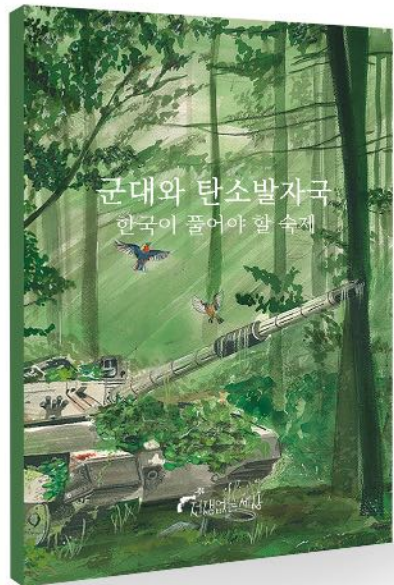
자료가 거의 없는 와중에서도 TNI 논문의 방법론에 따라 추산한 바에 따르면, 공급망 배출까지 포함한 2023년 한국군의 실제 탄소발자국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1,460만 톤으로 한국 전체 배출량의 2.2%에 달한다는 것,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부문 배출량을 ‘국가안보’ 사유로 비공개하고, 환경부 지침에서도 ‘국가 안보·국방과 직결되는 시설’로 분류해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괄적이고 투명한 배출량 집계 체계 구축 ▲한미연합훈련 등 대규모 군사훈련과 해외파병 활동 배출량 공개 ▲2030년까지 구체적인 감축목표 설정 ▲평화와 기후정의를 위한 문화적 전환 ▲국방비 삭감을 통한 구조적 해결 등을 정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후정의 행진을 앞두고 기후위기 군사 책임을 알리기 위해서 핸드북 발간 기

념 온라인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 워크숍에는 핸드북의 발간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것 이외에도 『당신은 하마스를 모른다』 옮긴이 이준태 님,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이신 김주은 님께서 각각 현재의 팔레스타인 상황으로 본 전쟁과 기후위기, 기후정책과 젠더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등의 정책입안자들과도 이 핸드북의 내용을 공유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중지를 모을 계획입니다.



## 2025년 주요 활동

### 대체복무제 개선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2018년 11월 대법원의 병역거부 무죄 선고의 결과 정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을 제정해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약 5년의 기간 동안 3,139명(2024년 8월 기준)이 전국 각지의 교정 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으로 만든 역사적 성과물이지만 입법 당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많은 인권 원칙이 훼손되고 후퇴한 채로 통과되었습니다.

군복무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 기간, 교정시설로만 국한되어 있는 복무 분야,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온

전히 독립하지 못한 심사위원회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처럼 핵심적인 문제점들뿐만 아니라 재심사를 할 수 없는 점, 입영대상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고지가 되지 않는 점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유엔자유권규약 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각각 2023년 11월, 5월)가 이어졌고, 심지어 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도 자체 조사, 연구를 통해 징벌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복무기간 단축, 복무 분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2023년 4월)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내포한 채 시작된 대체복무제를 바로잡고자 전쟁없는세상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 민

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 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와 함께 ‘대체복무 개선모임’을 결성해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체복무 개선모임은 윤석열 탄핵 집회로 정산했던 2025년 상반기 동안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현 대체복무제의 문제점, 개선점 가운데 법안에 반영해야 할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대체복무가 실질적으로 군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병무청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옮기고 심사위원 추천에서도 국방부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을 최대 27개월 이하로 줄이는 것, 교정시설로만 국한된 대체복무 영역을 사회공공적인 영역들-돌봄, 소방, 재난 대응 등과 같은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현역 군인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든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모든 입영 대상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는 조항, 그

리고 대체복무 대원들을 위한 괴롭힘 금지 조항이나 인권교육 같은 내용들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을 들고 2025년 하반기에는 부지런히 뛰어다녀 대통령실(2회), 국방부(1회), 국회(7명의 국회의원, 총 11회)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유엔 메커니즘을 활용해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상황과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 또한 2025년도 지속되었습니다. 유엔 경제적·문화적 권리위원회(ICESCR)에 한국 병역거부자들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보고했고, 유엔인권최고사무소(OHCHR)이 발행하는 세계 병역거부 현황 리포트에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상황과 현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국회에서 대체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25년 주요 활동

### 불법 비상계엄 저항



이제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작년 상반기는 누구나 그랬듯 전쟁없는세상 또한 윤석열 내란 세력의 12.3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저항행동으로 분주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시작했다가 광화문으로 옮겨온 주말 집회에도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열심히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전쟁없는세상이 계엄에 대해 어떤 이야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12월 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계엄선포를 한 직후 전쟁없는세상은 불법 비상계엄을 비판하면서 비폭력 시민저항으로 계엄에 저항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특히 군인과 경찰들이 부당한 명령을 양심에 따라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행했고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아직 2차 계엄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던 2024년 12월 8일에도 다시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군인들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를 인정해야 또 다른 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병역거부자들의 공동성명을 조직해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심판이 한참이었던 2월에는 반군사주의 맥락에서 계엄을 살펴보는 ‘계엄과 쿠데타’라는 블로그 시리즈를 발행했습니다. 군인들의 감정과 망설임이라는 감각을 예리하게 포착하며 항명하는 시민의 계보를 그린 최성용 선생님의 글, 폭주하는 남성성이라는 개념으로 계엄을 이야기한 오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글, 『명령에 따랐을 뿐』 서

평을 써준 역사교사 안민영 선생님의 글, 그리고 전쟁없는세상 활동가인 용석과 주가 각각 계엄에 저항하는 비폭력 시민저항과 윤석열의 군비증강과 방산 진흥 종착역으로서 계엄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5월 15일 병역거부의 날 행사도 쿠데타라는 키워드로 진행했습니다. 쿠데타 전문 집단이라는 별명(?)을 가진 태국 군부의 2014년 쿠데타 때 병역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태국 최초의 병역거부자 네티윗이 태국의 쿠데타와 이에 맞선 태국의 시민저항을 소개해주었고, 한국 윤석열 세력의 친위쿠데타와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한국 (특히 여성)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

팀장이 소개해주었습니다. 태국 참가자들도 많았는데 두 패널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한국과 태국의 참가자들이 소그룹으로 나누어 서로에게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25년 평화캠프의 주제도 쿠데타였습니다. 윤석열 세력의 불법계엄이 성공한 한국사회라는 평행우주 속 공간을 상정하고선, 만약 실제로 불법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어떻게 쿠데타 세력에 맞서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캠프였습니다. 쿠데타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렇게 극단적이고 극한의 상황에서 저항세력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연습





한 뒤에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한 그룹은 쿠데타 세력이 되고, 한 그룹은 저항세력이 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아직 관망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역할이 되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일종의 집단 롤플레이 게임 같은 프로그램이었고,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참가자들 모두 무척 재밌어하며 다시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해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흥미로웠습니다.

군대와 폭력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의 힘으로 증명한 2025년이었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총칼로, 대포와 탱크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없는세상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2025년 주요 활동 『전쟁 없는 세상』 발간



전쟁없는세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면전이 발발한 지 만 3년이 되는 해였던 2025년 2월 『전쟁 없는 세상 (원제: Pacifism Today)』을 발간하였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침공에 우크라이나는 무력 방어 전쟁에 나섰고 끝날 줄 모르는 전쟁에 양국의 사상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죠. 2025년 12월 BBC 기사에 따르면 나토는 러시아군 사망·부상자를 11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그중 사망자는 약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4만 6천 명 전사, 38만 명 부상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사망자는 14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맥락에서 평화주의는 논란이 매우

큽니다. 일부는 추가 사상자 방지를 위해 비폭력적 시민저항과 대화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확보를 위한 군사적 지원을 주장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심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이지만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화단체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을 경제적 ‘특수’로 바라보며 ‘K방산’의 성장과 호황을 기뻐했습니다. 이 문제는 왜 잘 논의되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는 탓이 크겠지만 군사력 이외에 평화를 수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 책을 번역, 발간하게 된 계기입니다.

가상의 회의문자와 저자인 마이켄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낯선 주제에도 불구하고 덕분에 매우 쉽게 읽힙니다. 회의론자는 매 이슈별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편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회의론자의 질문에 대해 마이켄은 점령군과의 모든 사회적·경제적 협력을 거부하는 방법, 예를 들어 동맹 휴업과 조작된 선거 보이콧 등을 제시합니다. 회의론자의 의문에 대한 답변에서 마이켄은 비폭력 투쟁의 독특한 역할을 밝혀냅니다. 그녀는 장기적으로 군사주의

가 이익보다 해악을 더 많이 끼친다고 지적하며, 러시아 국민이 어떤 상황에서 푸틴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지를 탐구합니다.

책 출간을 기념하여 3월 21일 책방 연회에서 『해방의 밤』, 『글쓰기의 최전선』,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등 우리 시대 가장 아픈 곳을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전달하는 은유 작가님과 『전쟁 없는 세상』 번역자이자 전쟁없는세상 활동가인 오리의 대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는 탱크 위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한 평화활동가 쭈야가 보았고, 50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평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고민이 담긴 질문과 감상으로 북토크를 채워 주셨습니다.



## 2025년 주요 활동 후원의 밤 ‘평화의 항해’

2003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22년 만에 후원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 전쟁없는 세상은 돈 적게 쓰고 캠페인 하는 게 특기인 단체고, 이게 가능했던 것은 운영위원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적인 참여와 동료 평화단체와 활동가들의 배려와 전없세 활동가들의 창의성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셈을 해보니 지난 5년 동안 적자가 연평균 약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적자가 늘어난 까닭은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전쟁없는세상이 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해 사무국 활동가들이 주 5일 근무

를 하지 않고 더 적게 받으며 더 적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해오던 캠페인은 여전한데 새롭게 해야 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다 보니 그 일을 다 해내기 위해선 사무국 활동가들의 근무일수를 주 5일로 늘려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인건비가 늘어났고, 사업이 늘어나니 사업비와 운영비도 늘어나게 되었죠.

아무리 돈을 아껴 쓰고, 창의성으로 무장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한다고 해도 해마다 적자가 쌓여가는 것은 위험한 신호죠. 이대로는 단체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25년에 후원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점을 할까, 후원 콘서트를 할까, 여러 방안을 두고 고민하며 토론하면서 하반기에 온라인 모금을 하고 마지막에 후원의 밤 행사로 마무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없는세상의 활동을 잘 알리면서도 모금도 많이 할 수 있을지, 콘셉트를 고민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의 특징, 전쟁없는세상이 가진 남다른 힘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없세는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큰 단체입니다. 주로 활동가들로 구성하되 다양성을 고려한 덕분에 전없세 운영위원회는 회의할 때도, 액션에 나설 때도 굉장히 역동적인 에너지를 뽐내니까요. 민주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고민에 더해 전쟁없는세상의 힘의 원천을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후원 캠페인과 후원의 밤을 준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조직위원을 전현직 운영위원으로 채웠습니다. 레게 밴드 베이스스트, 민주노총 상근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생, 수학강사, 연극연출자, 시민단체 상근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후원 캠페인과 후원의 밤 행사 콘셉트를 결정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의 활동을 이미지로 떠올리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군가 전쟁없는세상의 활동은 지도에도 없는 지점을 찾아가는 항해의 느낌이라는 말을 했고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제목을 평화의 항해로 정하고 우리의 여정을 평화를 위한 항해로 묘사했습니다. 고전 명작 게임 ‘대항해시대2’ 느낌으로 모금 페이지를 만들고 조직위원들을 항해사들로,



전쟁없는세상 모금캠페인을 홍보해 주는 홍보위원들을 항해에 함께하는 돌고래들로 명명했습니다. 망망대해 끝없는 수평선에서 외롭기 그지없는 평화의 항해에 돌고래가 없다면 건디기 힘들 테니까요.

그렇게 11월 12일부터 진행한 후원 캠페인은 12월 5일 후원의 밤 행사 ‘평화의 항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금이 잘 되지 않아서 노심초사했지만 한번 탄력을 받은 뒤에는 행사 당일 이미 목표액 3천만 원을 넘었고 최종적으로는 목표액을 33%나 초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후원의 밤 ‘평화의 항해’는 보기 드문(?) 콘셉트의 후원행사였습니다. 차린 음식은 조금 부족했지만(죄송할 따름입

니다) 돌아가며 여러 명이 사회를 보는 방식, 전체가 참여하는 보드게임, 릴레이 시 쓰기 같은 프로그램은 권력과 정보가 분산되는 것을 지향하는 전쟁없는세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재밌어서 참가자들이 한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 또한 전쟁없는세상과 함께 20년의 인연을 쌓아오고 있고 전쟁없는세상 행사에서 가장 많이 노래를 불러준 시와 님의 공연과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이자 탱크 위의 연주자인 쭈아가 펑컨과 함께 무기박람회 탱크 위에서 연주한 아일랜드 춤곡을 그대로 재현했고, 쭈아가 활동하는 바디퍼커션그룹 녹녹의 공연까지 무척이나 즐겁고 유쾌한 전쟁없는세상스러운 행사였습니다.





## 2025년 전쟁없는세상은 그밖에 무엇을 했나요

아무래도 활동보고서라는 것은 한 해 동안 단체가 진행했던 활동 중 가장 눈에 띄고 외부적으로 잘 알려진 활동들을 주로 포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운동은 중요하지만 언론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슈도 많고 행사를 위해서 또 조직운영 측면에서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는 일도 많습니다. 이 꼭지는 그런 활동들을 모두 담기 위한 우리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Q 비폭력 대안 읽기 모임을 시작했다. 『전쟁 없는 세상』 발간을 기념한 것이기도 하지만 계엄 이후 비폭력 저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우공:** 맞다. 계엄과 내란 시도를 목격하고 대통령 탄핵을 앞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저항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온 이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어 했다. 마침 마이켈 울 쇠렌센의 『전쟁 없는 세상』이 출간되었고, 이 책과 함께 주요 비폭력 투쟁 및 대안적 사회 변화를 다룬 도서들을 읽는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다.

**오리:** 대상 도서는 총 4권이었다. 첫 회차에는 마이켈 울 쇠렌센의 『전쟁 없는 세상 — 비폭력의 의미를 묻는 당신에게』, 두 번째 회차에는 진 샤프의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세 번째는 에리카 체드웨스와 마리아 J. 스티븐의 『비폭력 시민운동은 왜 성공을 거두나?』, 마지막 네 번째 회차에는 마크 앵글러와 폴 앵글러의 『21세기 시민혁명』을 읽었다. 격변의 시대에 비폭력으로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Q 4월에는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이 있었다. 윤석열 파면 직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이었는데**

**쭈야:** 그렇다. 4월 28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4년 세계 군사비 현황 보고서」에 맞춰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2조 7,18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고, 한국은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강한 국방력’을 강조하고 “K-방산이 미래 먹거리”라 주장하며 핵무장까지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이었다. 윤석열은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국방비를 증액했지만 북한과의 대화채널은 차단되고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되었다.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



**몽치:** 2018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된 이유 중 하나도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말하면서도 군사비를 증액하여 신뢰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더 많은 군사비는 평화가 아니라 주변국의 더 많은 군사비와 무기회사 수익으로 귀결될 뿐이다. 우리는 대선 후보들에게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만들어갈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무책임한 핵무장 주장이 아니라 핵 위협을 해소하고 핵전쟁을 예방할 방안을 내놓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Q 7월 8일에는 ‘방위산업의 날’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몽치:** 2023년 윤석열 정부가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했고, 2025년 첫 기념식이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렸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 전쟁없는세상도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의 일원으로 함께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래 무기 디자인 공모전을 열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무기체계 홍보 솜뿔을 제작하라는 게 과연 적절한가. 전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살상 무기 산업을 기념하고 홍보하는 것은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용석:** 한국은 2020~2024년 전 세계 무기 수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다수(74%)가 분쟁

중이거나 독재 및 인권 탄압을 겪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무기거래조약 위반이다. 방위산업은 기후위기도 가속화한다. 우리는 ‘방위산업의 날’ 폐지, 방산진흥정책 재검토, 무기거래조약 준수, 분쟁지역 무기 수출 통제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Q 6월에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가람:** 6월 23일 오전 11시, 212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고 대화와 협상 등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쟁없는 세상도 참여했다. 6월 21일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곳을 폭격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에 이어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며 사실상 대이란 전쟁을 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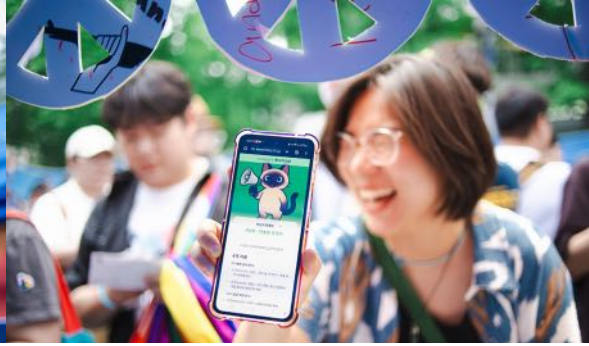
**오리:**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침략 행위다.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본토를 선제공격한 것은 유엔 헌장 위반이다. 불법 핵보유국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 제거’를 무력 공격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중동 지역에서 제거해야 할 현존하는 핵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이

스라엘이 보유한 핵무기다. 우리는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강조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Q 올해도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전쟁없는세상이 참여했다.

**악희:** 그렇다. 2025년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6월 14일에 열렸는데 전쟁없는세상도 부스로 참여했다. 슬로건이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였는데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성소수자 인권과 평화의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싶었다.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젠더화된 군사주의 문제 등 전쟁없는세상이 고민해 온 이슈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가람:** 성소수자들도 병역거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군사주의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



람의 삶을 어떻게 억압하는지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퀴어퍼레이드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장소이고, 전쟁없는세상도 그 가치에 동의하며 함께했다.

### Q 9월에는 기후정의행진에 피스메이커들이 모여 함께 걸었다.

**가람:** 맞다. 올해도 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되었고,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평화를 지키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들이 피(스 미)사일을 들고 다시 모였다. 우리의 구호는 명확했다. ‘전쟁은 기후위기 주범! STOP THE WAR’, ‘군사비를 줄여 기후위기 해결과 시민안전에’, ‘군사부문 탄소배출 감축 의무화하라’, ‘기후위기 심화시키는 무기거래 중단하라’, ‘기후정의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기후정의 없다’.

**쭈야:** 기후정의행진 6대 요구안 중 여섯 번째가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하라’였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확산되며 수많은 생명이 학살당하고 있고, 전쟁과 군비 증가는 기후위기 심화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 배출량의 5.5%에 달한다.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을 세계 4위 규모로 성장시키고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 하는 상황에서, 기후정의를 위해서는 반전과 군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다.



### **Q 가자 집단학살 2주년을 맞아 10월에 집회가 있었다.**

**쥬:** 10월 8일, 이스라엘이 가자 구호물자를 전달하려던 ‘천 개의 메들린 선단’을 나포하고 한국인 활동가 해초 님을 포함한 60명을 구금한 사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전쟁없는세상도 함께했다. 이어 18일에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주최한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2년 규탄 전국집중행동에 참여했다.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연대를 표했다. 가자 전쟁이 2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열렸고, 서울 도심에서도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냈다.

**우공:** 이번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재한 팔레스타인인 살레흐 란티시 씨의 발언이 특히 인상 깊었다. 2년간 멈추지 않고 연대해 준 것에 감사한다는 그의 말에 우리 역시 팔레스타인이 해방되는 날까지 연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전쟁없는세상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함께할 것이다.

### **Q 4월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수형자 선거권 제한이 자유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전쟁없는세상도 이 진정에 참여했다고?**

- **악희:** 그렇다. 2019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한 병역거부자 4명이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했었다. 2025년 4월 11일, 위원회가 실효 1년 이상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이 유엔 자유권규약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쟁없는세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이 결정을 환영하는 공동 논평을 발표했다. 현재 전체 수형자의 85% 이상이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 **몽치:**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보통 선거 원칙은 누구나 당연히 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9월에는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수형자 10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전쟁없는세상도 민변, 희망을만드는법,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Q** 보드게임 소모임 ‘전쟁게임 즐기는 평화주의자’도 새로 시작했다. 제목이 김초엽 작가의 책 제목에서 따온 것이라고?

**용석:** 그렇다. 김초엽 작가의 『아무튼 SF게임』의 한 장 제목에서 허락을 받고 따왔다. ‘나를 평화주의자인데 이런 게임해도 되나?’, ‘전쟁게임 하면 병역거부도 못 한다던데...’, ‘마음 맞는 사람들과 게임하고 싶어’ 이런 고민을 해본 분들을 위한 모임이다. 월 1회 평일 저녁 7시에 전쟁없는세상 사무실에서 진행하는데, 정기후원인은 무료이고 비후원인은 참가비가 회당 5천 원이다.

**쥬:** 쉽고 가벼운 파티/가족게임부터 머리를 쥐어짜는 전략게임까지, 피 말리는 전쟁게임부터 머리를 맞대는 협력/평화게임까지 100개 이상의 게임을 갖추고 있다. 플레이할 게임은 기본적으로 모임 사람의 선호에 따라 당일에 정한다.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이다. 평화운동 하는 사람들도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임이기도 하다.



# 2025년 타임라인

- 윤석열 즉각퇴진 범시민행동
- [강연] 무기 이전, 헌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1월

- 윤석열 즉각퇴진 범시민행동
- 전쟁없는세상 총회
- 단행본 『전쟁 없는 세상』 발간 기념 북토크

3월

- [병역거부의 날 행사] 쿠데타를 이겨낸 우리들 ‘노래와 이야기로 만나는 태국과 한국의 시민저항’
- 2023 ADEX 저항행동 김한민영(몽치) 활동가 재판
- [부산 지역 강연] 부마항쟁에서 MADEX까지
- 해양무기박람회 MADEX 저항행동

5월

- 방위산업의 날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오프라인 행사] 시민에게 겨냥된 무기: 경찰무기 수출과 경찰 무력 사용에 대한 공론장

7월

- 「군대와 탄소발자국: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 발간기념 워크숍
- 이스라엘 병역거부 수감자들에게 연대의 편지쓰기 캠페인
- [탄원캠페인] 서울 ADEX에 이스라엘 전범 기업들이 오는 걸 막아주세요!
- [927기후정의행진] 피스메이커 모여서 함께 걸어요!

9월

- 전쟁의 시대, 무기산업을 말하다: 「무기거래의 문제와 무기박람회」 보고서 발표회
- 전쟁없는세상 후원 캠페인 “평화의 항해” 시작

11월

2월

- 윤석열 즉각퇴진 범시민행동
- 단행본 『전쟁 없는 세상』 발간

4월

- [소모임] ‘비폭력 대안읽기 모임’, ‘전쟁게임 즐기는 평화주의자’ 시작
- 무기 수출입 통계, 감시의 눈을 되찾다: 법원 판결 함께 읽기
- 무기박람회저항행동 부산 간담회
- 2022 DX Korea 무기박람회 저항행동 대법원 최종 선고

6월

- [캠페인] 최루탄이 아니라 연대를! 50명이 만드는 세 가지 변화 캠페인
- 서울 쿼어문화축제 부스 참여
-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기자회견

8월

- [2025 평화캠프] 그날, 게임을 막지 못했다면

10월

- 무기박람회 ADEX 저항행동
- 치안산업박람회 KPEX 현장조사
- 이스라엘 가자학살 2주년 집회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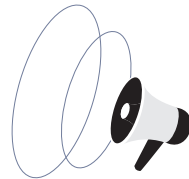
- 전쟁없는세상 후원의 밤 ‘평화의 항해’

# 전쟁없는세상

## 2025 재정보고

2025년은 전쟁없는세상에게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한 후원 캠페인 “평화의 향해”가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후원금 수입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록적인 흑자를 달성하게 된 점은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정기·일시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있었기에 전쟁없는세상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총지출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으며 프로젝트 사업비의 대부분이 사업수행비용으로 쓰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사무실 IT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 이 금액은 일반관리비용에 포함되었습니다.



2024 이월금	2025 총수입	2025 총지출	2025 이월금
25,491,402원	168,344,155원	143,915,462원	49,920,095원

### 수입 내역

구분	항목	금액(원)	비율(%)
기부금 수익	정기후원	68,517,751	40.7
	비정기후원	57,210,710	34.0
	특별후원금	3,366,000	2.0
보조금 수익	지원금수입	31,516,495	18.7
회비수익	회비수입	240,570	0.2
기타 수익	강사료, 인세, 참가비 등	7,469,168	4.4
사업 외 수익	수입이자	23,429	0.0
	잡수입	32	0.0
총계		168,344,155	100

## 지출 내역

구분	항목	금액(원)	비율(%)
일반관리비용	급여	75,600,000	52.5
	사회보험부담금	7,446,380	5.2
	복리후생비	1,364,870	0.9
	퇴직급여	7,080,000	4.9
	시설지급임차료	3,833,900	2.7
	사무용품비	4,234,260	2.9
	회의비	1,172,010	0.8
	도서인쇄비	1,148,500	0.8
	통신비	1,561,275	1.1
	발송비	342,000	0.2
	지급수수료	9,974,363	6.9
	소모품비	-43,920	0.0
	행사진행비	6,780	0.0
소계1		113,720,418	78.9
사업수행비용	시설지급임차료	3,861,500	2.7
	여비교통비	1,826,500	1.3
	도서인쇄비	5,983,080	4.2
	통신비	973,589	0.7
	발송비	99,910	0.1
	지급수수료	13,408,201	9.3
	행사진행비	1,973,230	1.4
소계2		28,126,010	19.7
사업 외 비용	영상제작인쇄비	500,000	0.3
	사업행사비	1,496,034	1.0
	사업관리비	73,000	0.1
소계3		2,069,034	1.4
총계(소계1+소계2+소계3)		143,915,462	100

## 프로젝트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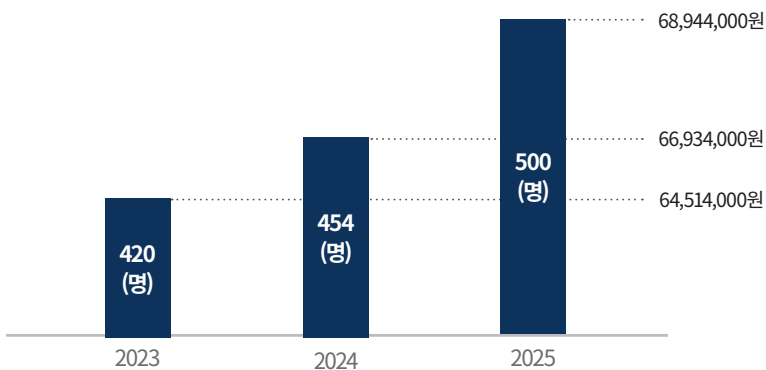
사업명	지원처	금액(원)
한국산 무기 수출 반대 캠페인	바보의나눔	20,500,000
K-밀리터리 기후책임 프로젝트: 핸드북 발간 및 정책포럼 사업	우분투재단	3,000,000
2025공익단체IT인프라지원사업 'IT로 일하는 방식 전환'	아름다운재단	4,000,000
한국산 경찰무기 수출 감시 캠페인	하인리히비펠재단	4,033,935
총계		31,533,935

## 전쟁없는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후원인들

2025년에는 대대적인 후원 캠페인 결과로 예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 860명의 개인과 단체가 전쟁없는세상을 후원 해주셨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77명의 후원인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였고, 31명이 개인 사정으로 후원을 중단해서, 2025년(12월 31일 기준)에는 전년 대비 약 10% 성장(46명 증가)하여 모두 500명의 정기후원회원이 전쟁없는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월정기후원 회원 변화 추이



#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해주세요

전쟁없는세상은 우리의 활동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과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재정 대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상근자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각종 캠페인 사업비 등 단체의 여러 활동에 사용합니다.

##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평화 행동에 쏟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평화활동을 위해 정기후원으로 활동비를 만들어 주세요.  
전쟁없는세상은 일상적으로 병역거부자 지원과 대체복무제 개선,  
무기거래 감시, 기후분야 군사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후원으로 전쟁없는세상의 평화활동에 함께해 주세요.

후원링크



##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가와 시민들이 함께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 다양한 병역거부 등 다양한 직접행동의 실행, 벌금, 재판 비용 등으로 쓰입니다.

## 경찰무기 감시 기금

전쟁없는세상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산 시위진압무기 수출 감시 캠페인의 활동비와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경찰무기 감시 기금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위진압 무기 수출 캠페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 후원안내

[withoutwar.org/donate](http://withoutwar.org/donate)

문의: 02-6401-0514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102-921333

예금주: 전쟁없는세상



전화 02-6401-0514

이메일 [peace@withoutwar.org](mailto:peace@withoutwar.org)

홈페이지 [withoutwar.org](http://withoutwar.org)

페이스북 [facebook.com/withoutwar.org](https://facebook.com/withoutwar.org)

인스타그램 @withoutwar

X(트위터) @withoutwar0515

